



최근 청주 동부창고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워크샵<툼>* 등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태동이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출범하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거점의 경우

문화이식현상이 도드라질 때가 많아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갔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동부창고의 미래를 설계해 가고 있는

황순우 소장(동부창고 총괄계획가, (주)건축사사무소 바인 대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부창고 전경



동부창고 외부

안녕하세요.

황순우 소장님은 지난해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웹진에서  
외부필진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전주 팔복예술공장의 꿈꾸는 예술터 사례를 잘 설명해주셨는데  
이번 청주 동부창고의 꿈꾸는 예술터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장님이 진단하는 청주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참고 / [2019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웹진 황순우\\_지역적 사유를 담은 공간](#)

☞ 전주 팔복예술공장은 3년간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요 지점은 예술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집중적 탐구와 핵심을 축출하여 카테고리화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로그램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을 다녀오면서 ‘예술이 갖는 본질적 가치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연구에서도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청주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이미 예술적 가치에 집중하여 구축된 일부 시스템과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동시에 지역적 특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를 병행하였어요.

25명의 지역 예술가들과 5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방법으로 지역성을 녹여내는 과정을 진행했지요.

청주는 이미 좋은 자원이 많다고 판단했어요.

청주에는 창작스튜디오와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역을 판단하기보다는 청주 지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상황인지가 드러나도록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완성을 말하기보다 시스템 알고리즘의 기초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에서는 사례로 삼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주가 꿈꾸는 예술터 사업의 첫 사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많은 지자체에서 팔복예술공장의 사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황순우 소장 인터뷰 모습

최근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거점 구축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들었어요.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이것은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광역과 민간만 존재했었는데 **광역, 기초, 민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초는 중간 가교 역할을 진행하여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사실 기초단위 재단에는 예술교육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청주의 경우 이번에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해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여태껏 광역단위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이제 기초단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과 민간의 거리감보다는 기초와 민간의 거리가 더욱 가깝고 거버넌스를 형성하는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장에 집중된 문화예술교육이 실행 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협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에서는 세 가지 주요 지점이 있는데,  
첫째는 **지역과 협치**예요. 청주 지역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지요.  
지역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고 분위기와 이해도의 차이도 있어요.  
이것을 해소하는 데에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전주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청주의 경우 5년의 시간을 염두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인력, 네트워크**입니다. 청주에는 이미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잇는 방법과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좋은 현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라운드테이블과  
콜로키움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마지막 예술가와 교육프로그램은  
이번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틈>을 통해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파일럿프로그램 (배해경작가)



예술교육 프로젝트 〈틈〉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예술교육의 이상적인 교수자는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예술교육은 교육적 성격보다는 경험적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 상상력, 창의력을 익히는 것이 예술교육의 핵심이라 보는데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상상력,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예술공장에서도 예술교육자 관한 원칙을 정할 때

**‘현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술가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예요.

예술교육에는 일종의 훈련이 필요한데 자신의 작품 활동에서 핵심 가치를 축출하고 그것을 통한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이는 훈련이 없다면 갖춰지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바로 <틈>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독하게 1일 최대 8시간의 수업(16회)이 진행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비평시간을 갖고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나면 예술가들은 저마다 자신이 설계한 예술프로그램을

경험한 예술가가 되어 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교육 프로젝트 팀 라운드테이블



예술교육 프로젝트 팀 실기워크숍

마지막으로 저희 웹진의 대주제이기도 하고  
현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코로나-19로 오는  
전환의 시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우리는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요.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을 경험하고 있기에 다음을 어찌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엔,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의 지점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대량화, 표준화, 획일화의 시대가 가고 양에서 질의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에 대한 진단과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공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 실행되며 시행착오가 연속되는 시대기이도 해요.

다만 핵심 가치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것은 이미 오고 있던 시대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급속도로 직면한 것 일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하기보다 현재를 집중하고 변화를 감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직관과 통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직관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AI 알파제로는 직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통찰은 사람처럼 사유하며 알파제로가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직관의 능력이 30년 후의 인류에게 큰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직관은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언어적 시기에만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발달하게 하는 데는 예술적 경험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벤트, 행사, 축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술 행위가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만 집중하기보다 가치와 의미를 깊게 찾는 시기가 되어 버린거지요. 각설하고 말하자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가치의 변화가 크게 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계 사람으로서 전환의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일럿프로그램(이지연작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동부창고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꿈꾸는 예술터, 동부창고 취재 전 들었던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미 많은 부분을 염두하여 과정 중심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지역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동부창고가 조금씩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곤 하였다.

이는 그만큼의 관심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구설수에 경계 때문인지

꿈꾸는 예술터와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을 위한 준비 그리고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이 동부창고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홍보가 많지 않았다.

아직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기도 하고 현 팬데믹 사태에 참여자들을 초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지역에 새로운 거점이 만들어지고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목표인 것,

그리고 결과와 양적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과 질적 성과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응원해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꿈꾸는 예술터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현 계획단계, 익년 착공 계획) 3년 후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 하반기 때면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이 갖춰질 것이다.

코로나-19로 멈춰진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 가볼 리스트에 자리하지 않을까.